

전남 '가짜 농부' 직불금 수령액 급증

지난해 2400만원 전년비 3.4배 늘어...5년간 1억2600만원 달해

최근 20년간 광주 면적에 맞먹는 경지가 전남에서 사라진 가운데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타년 농업직불금 부정 수령액은 1년 새 3.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공익직불 부정 지급 금액 및 미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부정 지급한 농업직불금은 2400만원으로, 전년(700만원)의 3.4배(242.9% ↑) 수준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공익직불금 부정 지급 금액은 1억2600만원으로, 전체(12억2300만원)의 10.3%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 부정 지급액은 2019년 300만원, 2020년 700만원, 지난해 2400만원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전남에서는 900만원 상당 부정 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줄곧 적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00만원 부정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남 부정 지급액 1억2600만원 가운데 환수된 직불금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전남 미환수 비율은 76.2%(9600만원)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100만원 중 0원 환수)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지난 20년 동안 전남에서는 광주 전체 면적에 맞먹는 경지가 사라졌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부정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전남 경지면적은 28만1077ha(헥타르)로, 20년 전인 2001년(33만261ha)보다 4만9184ha(-14.9%) 감소했다.

줄어든 면적은 광주시 전체 면적(5만110ha)에 맞먹는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직불금의 부정 지급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해 받은 경우"라며 "직불금 수혜가 가짜 농부에 돌아가지 않도록 실제 경작을 하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부정 지급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령 금액 비중은 기존의 쌀 직불금이 1억5700만원으로 전체(3억2700만원)의 48%를 차지했다.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한 2020년 이후 기본형 직불금 부정 지급액은 1억5300만원으로 46.8%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밭 직불금과 조건 분리 직불금이 뒤를 이었다.

농업직불금은 지난 2020년 5월 공익직접지불금 제도(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

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회는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2019년 공익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농가 등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인 약 56만명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 약 3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해준 상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증기 "10월 경기도 좋아질 것"

제조업 등 경기 전망 두 달 연속 상승...전국 평균 웃돌아

경제 위기 속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두 달 연속 소폭 상승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달 15일부터 22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8.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85.1)을 웃도는 것은 물론, 전월(86.5)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전월(86.0)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88.5로 전망, 전남은 전월(87.1) 대비 0.3포인트 오른 87.4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91.3로 전월(88.1)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84.8로 전월(85.0)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경기전망지수는 8월(78.0) 이후 두 달 연속 반등한 것이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와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세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목별 전망을 보면 내수판매(86.8→89.9), 수출(88.5→92.0), 경상이익(82.8→86.3), 자금사정(80.4→86.5) 전망은 전월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 지난 달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여론은 '인건비 상승'(56.3%)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내수부진'(52.4%), '원자재 가격 상승'(47.7%), '업체간 과당경쟁'(41.8%),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40.9%) 등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이 4일 광주시 서구(청장 김이강·가운데)와 특례보증대출 재원 5000만원을 추가 출연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추가 출연

광주은행-서구청 협약

광주은행이 광주시 서구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대출'에 5000만원을 추가 출연했다.

광주은행은 광주시 서구, 광주신용보증재단과 4일 서구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2월 이후 이번이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다.

이 재원을 기반으로 광주 서구 소상공인들에게 30억원 규모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게 됐다.

특례보증대출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광주은행은 최대 0.3%포인트까지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서구가 4% 이

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보증료율은 연 0.7%이다.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총 81억6000만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총 47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올해는 광주시 광산·동·서·북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 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총 105억75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송중욱 은행장은 "가장된 지역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와인과 어울리는 밀키트 알려줘"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ES 2022(한국전자전)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프로모터가 '비스포크 큐커와 함께 와인과 어울리는 밀키트까지 추천해주는 '소물리에 옛'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한 맞춤형 라이프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ES 2022(한국전자전)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프로모터가 '비스포크 큐커와 함께 와인과 어울리는 밀키트까지 추천해주는 '소물리에 옛'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한 맞춤형 라이프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최다 '불명예'

6년간 173억 횡령·배임 등 사고...회수액 27억8000만원 그쳐

광주·전남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170억원이 넘는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전국 '최다 사고' '최대 피해' 불명예를 얻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의(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13건의 횡령·배임·사기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172억8200만원에 달한다.

금고가 있는 지역분별로 보면 광주·전남이 피

해 건수와 피해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0건(124억9400만원), 서울 10건(49억9000만원), 전북 9건(35억7300만원), 경북 9건(28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피해액만 170억원이 넘는 데,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7억8200만원으로 16.1%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회수금액 비중 35.2%(640억9700만원 중 225억77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사고 13건 가운데 피해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사건은 4건에 달했다. 같은 기

간 전국에서 10억원 넘는 피해는 12건 발생했는데, 광주·전남이 '3건 중 1건꼴'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전무가 권한 없이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하는 업무상 배임으로 28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징계 조치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신용·공제 사업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사·제재권이 없어 금융당국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8월 소형금고 감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재차 발표했다.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17억 3700만원 달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요금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쓰지 않고 버려지는 비율이 전남이 지난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 4년 연속 증가 추세로, 전국 평균 미사용률을 웃돌았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바우처 발급액은 78억1700만원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22.2%에 달하는 17억3700만원으로 집계

됐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바우처 44억7500만원 가운데 23.7%인 10억5900만원 상당이 쓰지 않고 버려졌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미사용률을 기록했다. 광주 미사용률은 10.5%(2017년)→14.0%(2018년)→18.2%(2019년)→18.7%(2020년)→20.3%(지자체) 등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취약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출범

연체 90일 이상 차주 60~80% 원금 조정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4일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자이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일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27~30일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기간 총 341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액 규모는 총 5361억원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09.38(+53.89)
↑ 코스닥	696.79(+24.14)
↓ 금리(국고채 3년)	4.081(-0.105)
↓ 환율(USD)	1426.50(-3.70)